



베 이 사 이 드 한 인 천 주 교 회

KOREAN COMMUNITY OF ST. ROBERT BELLARMINE ROMAN CATHOLIC CHURCH

56-15 213TH STREET, BAYSIDE, NY 11364

TEL: 718-352-6979

주임 신부 : 이가벨 가브리엘

보좌 신부 : 김현수 프란치스코

본당 수녀 : 이영은 로사리아, 양유진 카타리나

사목회장 : 김남연 요셉 TEL: 917-662-1363

부회장 : 김현준 루카 TEL: 718-813-2841

www.SRBKorean.org / E-mail: KoreanSRB@gmail.com

2026년 2월 18일 호외 제 2026-2호

재 의 수요일



✠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제 1 독서 요엘 예언서 2,12-18

화답송

주 님, 당 신 께 죄 를 지 었 사 오 니, 저 희 를 불 썩 히 여 기 소 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
- 제 허물을 말씀히 찢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제 2 독서 코린토 2서 5,20—6,2

- 복음 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복 음 마태오 6,1-6.16-18

영 성 체 송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은 제때에 열매를 맺으리라.

미 사 생 가

입 당	124: 은혜로운 회개의 때 320: 자비송
재 의 예 식	223: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225: 주여 돌보소서
봉 헌	342: 제물 드리니 322: 거룩하시도다 388: 주님의 기도 324: 하느님의 어린양
성 체	198: 성체 안에 계신 주님 151: 주여 임하소서
파 견	127: 십자가 바라보며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오늘은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첫날로 사순 제1주일 전(前) 수요일을 말합니다.



이날 교회는 미사 중에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이마에 바르는 예식을 행하는 데서 재의 수요일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재의 수요일이 사순시기 첫날로 성립된 시기는 교황 대 그레고리우스 1세(재위 590-604년)때 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교황 바오로 6세(재위 1563-1572년)가 이날에 전 세계교회가 단식과 금육을 지키도록 규정했습니다. 단식과 금육은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하고, 금육은 만 14세부터 매 주 금요일에, 단식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하루 세끼 중 한 끼만 충분히 먹고 한 끼는 요기(죽 한 그릇 정도)하며 한 끼는 완전히 금식합니다. 또한 사제는 오늘부터 40일간 회개와 속죄의 상징인 자색 제의를 입습니다.

‘재’는 유대인들의 참회표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죄를 지었을 때 재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자루 옷을 찢는 참회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교회에서 처음부터 이 날을 재의 수요일이라 부르지는 않았습니. 머리에 재를 얹는 예식이 처음으로 등장한 <그레고리우스 성사집> (Sacramentaria Gregoriana)에서 이 날을 ‘재의 날’(Dies Cinerum)이라 불렀습니다.

재의 수요일 ‘재를 바르는 예식’ 그 자체는 준성사로써 교회법 제844조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한 누구에게든, 그가 가톨릭 신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수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법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축복은 우선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예비신자들에게도, 또한 교회의 금지가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비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줄 수 있다”(교회법 제1170조). 또한 이 예식은 미사 없이도 독립적으로 거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식에서 우리는 사제에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심하십시오”(창세 3,19) 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마르 1,15)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개인적인 슬픔과 비애, 그리고 참회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이 상징은 우리의 현세의 삶이 허무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현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삶은 궁극적으로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삶을 준비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현세의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시기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 <가톨릭뉴스 지금 여기> 발췌 -

사순절(Lent)의 의미

파스카의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설정된 40일간의 기간을 말한다. 사순절이 되면 신자들은 이미 받은 세례를 다시 생각하고 참회행위를 통해서 파스카의 신비체험을 준비한다. 이 시기는 재[灰]의 수요일부터 주의 만찬미사 전까지 계속되며 사순절 시작부터 부활 전야제까지의 미사에서는 알렐루야를 하지 않는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은 온 세계에서 단식일(斷食日)로 지내며 머리에 재를 얹는다. 이 시기의 주일은 사순 제1, 2, 3, 4, 5주일이라 부르고, 성주간(聖週間)이 시작되는 제6주일은 '주의 수난 성지주일'이라고 부른다. 성주간은 메시아로서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성주간의 목요일 아침에는 주교가 사제단과 미사를 공동집전 하면서 성유(聖油)를 축성한다.

초대 교회시대에서 3세기초까지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부활절전 2-3일간 예수의 수난을 기억하였으나 니체아 공의회(325년) 이후 40일로 기간을 정하였다. 그레고리오 교황시절부터 재의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일로 정착되었다. 40이라는 숫자는 그리스도가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며 기도했던 사실에서 유래된 숫자다. 이외에도 구약성서에서도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한다. 노아의 홍수기간, 모세가 십계를 받기 전 단식기간,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방랑기간, 호렙 산에서 엘리아가 기도하던 기간 등은 모두 40이라는 숫자와 연결되어 있다.

사순절기간 동안의 전례는 우선 사제의 제의(祭衣)의 빛깔이 보라색으로 바뀌고, '알렐루야'와 '대영광송'을 노래부르지 않고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한다. 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엄격히 단식하던 것을 본받아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을 이기는 극기(克己)의 자세를 요구한다. 40일 동안 단식과 금육(禁肉)을 통해 절약한 것을 모아 두었다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이 기간 중의 단식은 재의 수요일과 예수 수난 금요일에, 금육은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기간의 모든 금요일에 지켜야하고, 단식은 만 21세부터 60세 되는 날까지(환갑전), 금육은 만 14세부터 모든 신자들이 지켜야 한다. 규정된 단식이나 금육 이외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기도, 미사참여, 사랑의 나눔 등을 실천해야 한다.

- <가톨릭 대사전>-